

닐 포스트먼의 경고

이정춘 | 중앙대 신방과 교수

지금은 미디어사(媒體史)에서 분명 전환기다. 역사적 전환기에는 언제나 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대안을 추구하는 입장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측이 나오게 마련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매체가 대두하면서 지난 6세기 이래로 인류문화의 중심매체였던 활자매체가 전자매체로 대체될 것으로 보는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서로 대칭적 견해를 보인 대표적인 학자들은 마셜 맥루한과 닐 포스트먼이다. 맥루한은 인쇄미디어가 전자미디어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반해 포스트먼은 인쇄매체의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포스트먼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한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태와 기능을 바꾸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두 입장을 비교해 볼 때, 맥루한이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의 소멸과 생성을 봤다면, 포스트먼은 미디어의 위기에 대한 자체 생존력과 경쟁능력을 봤던 것이다.

이들 두 미디어학자의 견해 가운데 출판계는 포스트먼의 경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포스트먼은 출판계의 위기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존의 출판이 전자책에 의해서 대체될 것인가의 여

부가 아니라 종이출판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포스트먼은 미디어경쟁에서 앞으로 두 가지 유형의 출판물만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는 영화배우의 스캔들이나 유명인사의 사생활 폭로와 같은 저질적인 내용의 소설과 같은 출판물이다. 또 다른 유형은, 예를 들어 영상 텍스트로 편집된 것으로, 날씬한 몸매 관리와 요리책 처럼 소위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들이다. 그러나 출판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대체될 출판물은 세번째 유형의 교양물이다. 교양출판물은 '진지한 작가'의 작품들이며 '진지한 편집자'가 출판하고 싶은 책들이지만, 일반 독자들이 점점 더 '골동품'처럼 취급하고 출판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은 한국출판연구소의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전래동화'나 '위인전'을 즐겨 읽다가 고학년이 될수록 '오락용 만화'나 '연예 오락'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실용·취미도서는 29.7%, 만화·무협지는 25.7%의 수치를 보이는 반면 교양도서는 7.2%로 저조한 상황이다.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지한 독자와 진지한 도서' 유형의 소멸에 대한 포스트먼의 우려가 우리의 출판문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포스트먼은 종이출판이 전자책에 의해서 대체될 것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출판이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현실의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진지한 독자'들과 '진지한 독서행위'가 정착되도록 출판계가 독자확보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